

제2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결산

상 전시 기획·구성

‘LIGHT’ 주제 중심 전시 빛나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폐막식을 끝으로 30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빛 LIGHT’를 주제로 한 이번 비엔날레는 주제 중심 전시라는 새로운 시도로 각광받았고, 광주를 디자인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디자인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국제 행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회진행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2회에 걸쳐 디자인비엔날레의 발전 방향 등을 살펴본다.



3일 폐막하는 2007광주 디자인비엔날레는 상업적인 성격의 디자인비엔날레를 예술적인 비엔날레로 끌어올림으로써 문화수도 광주의 디자인 역량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예술비엔날레로 도약... 일부 작품 중복 전시 신선감 떨어져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는 1회 때와 달리 ‘백화점식’ 작품 나열에서 벗어나 전시의 주제와 지향점을 뚜렷이 드러낸 주제 중심 전시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빛의 영문인 ‘LIGHT’의 머리글자를 따서 5개 부문으로 나눠 작품을 전개한 본 전시는 디자인의 과거와 미래, 현재를 짜임새 있게 조망하는 한편 디자인 비엔날레의 품격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피터백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장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지역의 정체성을 최대한 살리고 상업적인 디자인 전시에서 벗어나 예술

성을 높이는 등 예술 비엔날레로도 약할 가능성을 높였다”고 호평했다. 본 전시 외에 ‘남도디자인 자산 100선’전은 광주의 디자인 역량을 국내외에 선보이는 계기가 됐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남도의 권을 찾아주세요’라는 공모전을 통해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디자인의 저변을 넓히고 젊은 디자이너들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특히 시민들과 지역 작가, 디자인 단체들이 출품한 공예, 섬유, 디자인 작품들은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들은 물론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디자인계에 ‘화두’를 제시한 것도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식장에서 발표된 ‘세계 디자인 평화선언’은 산업적인 가치에 머물고 있는 디자인의 의미를 인류 평화와 복지 등 사회적인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이밖에 관람객의 구성비에서도 1회 대회와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다. 개막 29일째를 맞은 2일 현재 내·외국인 관람객 23만여명이 행사장을 찾는 상황을 이뤘으며, 이 가운데 10만여명이 개인, 가족단위 관람객이었다. 재단은 ‘동원형’ 단체 관람객의

비율이 감소한 대신 개별 관람객이 증가한 것은 디자인비엔날레가 시민들에게 폭넓은 호응을 얻어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시실의 경우 ‘OLPC’라는 동일 작품이 2개 출품된 본 전시 ‘Human Zone’과 한·중·일 ‘동아시아 일러스트레이션’ 전 등은 신선한 작품을 원하는 관람객의 기대에 못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개막 초기에 ‘Long harp’ 등 일부 작품이 훼손되는 등 관람문화가 실종된 것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07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전시 만족도 부문에서 관람객들에게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람객 5명 가운데 4명은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다시 찾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호응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재)광주비엔날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정보리서치에 의뢰, 지난 10월 5~31일까지 27일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

■ 관람객 1,000명 전시 만족도 설문조사
‘ 전반적으로 만족 ’ 65%
주제 전시내용 일치 68.4%... 5명 중 4명 ‘다시 관람’
한 의견조사 결과 나타났다. 조사결과 관람객의 64.9%는 행사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1.8%, 불만은 3.3%로 나타났다. 전시내용에서는 관람객의 68.4%가 ‘주제와 전시내용이 일치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그렇지 않다’는 경우는 5%에 머물러 주제 중심 전

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입장료(성인기준 7천원)에 대해 관람객 56%가 ‘적절하다’고 대답했으며, ‘저렴했다’는 경우도 23.3%로 나타났다. 관람 목적으로는 25.1%가 ‘디자인 지식과 학습을 쌓아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 전공 학생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을 반영했다. 이번 조사는 체계적 무작위 표본추출법에 의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잉고 마우러 작 ‘루첼리노’

유리와 낫쇠, 깃털 날개단 전구

‘빛의 시인’으로 불리는 잉고 마우러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 지난 1992년에 제작된 ‘루첼리노’는 유리나 낫쇠에 수공예로 만들어진 부드러운 깃털 날개를 부착한 전구다. 테이블과 벽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실용성이 강조된 데다 빼어난 예술성을 갖추고 있는 조형 예술의 걸작으로 꼽힌다. 루첼리노는 ‘고정된 컨셉이 없는 게 컨셉이다’는 예술철학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상상과 영감을 작품으로 승화하는 잉고 마우러의 예술세계를 응축한 작품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잉고 마우러가 1966년 최초로 디자인한 조명기구 ‘Bulb’도 디자인비엔날레 특별초대전에서 소개되고 있다. ‘Bulb’는 전구 속에 또다른 전구를 넣은 독특한 이중구조가 특징이다. 그는 세계디자인평화선언 기념 조형물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앞 광장에 세워진 ‘평화의 빛’을 설계하기도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장인의 예술혼

윤용대 사진전 3일부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문분야를 영예에 담은 사진작가 윤용대씨가 3~7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인전을 연다. 윤씨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공예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소목장(小木匠) 설석철(중요무형문화재), 김생수, 고가구수리·제작자 유무송씨 등 장인 3명의 예술혼을 담은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자신이 ‘소목장의 일기’라고 명명한 작품들을 통해 장롱, 뒤주, 반닫이, 경대, 머릿장 등 전통가구를 만드는 장인들의 손길과 열정을 소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소목장(小木匠) 설석철’

광주시미술대전, 전남도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지냈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시지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11-635-002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파파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4일 5·18 기념문화관 민주홀

파파 남성합창단(단장 이주학) 제 4회 정기연주회가 4일 오후 7시30분 5·18 기념문화관 민주홀에서 열린다. 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회로 꾸러지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자작나무’, ‘그의 빛 안에 살면’, ‘아빠 힘내세요’, ‘아빠와

크레파스’ ‘이동병의 편지’ ‘너를 보내고’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사한다. 지휘는 이준, 반주는 김성용씨가 맡는다. 또 금당중학교 합창단과 파파중창팀이 찬조출연, ‘별’ ‘아빠의 청춘’ 뮤지컬 ‘남태평양’ 중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 등을 들려준다. 2003년 결성된 파파남성합창단은 제 2회 창원 전국그랑프리합창제에서 대상과 제7회 탐라 전국합창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수차례 입상했다. 문의 011-9041-2272.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메가박스 Megabox advertisement listing movie showtimes and prices for various theaters.

엔터시네마 Enter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 showtimes and prices.

콜롬버스시네마 Columbus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 showtimes and prices.

씨너스전대 Cinears advertisement listing movie showtimes and prices.

무등극장 Mudeung Theater advertisement listing movie showtimes and prices.

제일시네마 Jeil Cinema advertisement listing movie showtimes and prices.